

## 88통신 정책 방향

吳 明  
(체신부장관)

### ■ 차 례 ■

- |                    |                         |
|--------------------|-------------------------|
| 1. 머리말             | (2) 정보·통신산업 육성          |
| 2. 정책기본방향          | 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        |
| 3. 주요시책            | 라. 정보문화의 확산             |
| 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     | 마. 전과자원의 이용확대 및 이용 효율화  |
| (1) 통신시설의 확충       | 바. 통신정책 기능 강화 및 경영체제 개편 |
| (2) 국민복지통신서비스의 확충  | 사. 88서울올림픽 통신지원체제 완비    |
| 나. 첨단기술개발 및 통신산업육성 | 4. 맺음말                  |
| (1) 핵심기술의 자립화      |                         |

### 1 머리말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내외의 전기통신환경은 커다란 변혁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요청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선진각국은 고도정보화사회의 핵심요소기술의 선점을 통한 지속적인 우위 확보를 위하여 첨단통신기술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서비스 교역분야의 개방과 자유화 추세에 발 맞추어 통신산업분야의 재편과 독점적 통신사업의 분업과 민영화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후기 산업사회에 이어 도래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과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일반국민의 적응능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도 80년대에 들어서서 인적·물적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노력한 결과 작년에 전국전화자동화의 완성과 함께 전화 1,000만회선 공급으로 1가구 1전화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으며, 전전자교환기를 독자개발하는 등 많은 결실을 거둔 바 있다.

현재 우리의 통신은 세계 10위권의 선진수준에 도달한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 단순한 통신수요의 충족으로부터 질적 고도화정책으로 또한 이용자 중심의 복지통신을 구현해 나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통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와 전문화를 추진하여 통신사업운영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단계에 와 있다.

더우기 미래 정보화사회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일반국민의 적응능력 함양과 정보문화확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정부 출범의 첫 해를 맞아 이러한 정책전환의 사고에 기초를 두고 1988년 우리의 전기통신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 2] 정책 기본 방향

금년도 통신정책 방향중 중요한 부분만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확장에 주력해왔던 종래의 통신기반정비시책을 통신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확대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한편, 해상통신, 주파수공용무선통신 등 기존의 잠재적 통신수요를 실수요화하는 통신이용촉진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첨단통신기술의 자립을 위하여 장기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켜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유도하는 한편, 1990년대 중반까지 통신기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장기기술발전추세의 연구와 더불어 첨단기술개발을 더욱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셋째, 새로운 통신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선진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국민의 적응능력을 함양하며, 지역간 정보이용의 균형을 통한 지방시대의 구현을 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정보문화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네째, 국내외 전기통신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인 경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아울러 통신사업의 영역별 전문화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업계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부가가치통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신사업과 단순한 회선사용을 구분함으로써 부가가치통신

사업자를 통신사업자로 관리하고 회선이용은 점차 자유화 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올해에 개최되는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통신 분야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전기통신수요의 원활한 충족과 첨단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전산시스템의 완벽한 운영을 통해, 86아시안게임에서 입증된 우리의 전산·통신역량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 속의 한국이 이룩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다.

## 3] 주요시책

### 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

#### (1) 통신시설의 확충

1980년에는 284만회선에 불과하던 전국 전화시설이 그간 통신시설의 대량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작년에는 1,000만회선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통신선진국으로 부상하였다. 금년에도 116만 회선을 추가 증설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하고 인구 100인당 전화기 보유대수를 32대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지속적인 전화시설의 대량공급과 함께 장거리 통신시설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광관로 235km, 광케이블 945km를 추가 건설할 것이며, 동시에 해저광케이블 건설사업과 위성통신지구국 건설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고품질설비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2) 국민복지통신서비스의 확충

이와 같이 통신시설의 양적 확충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이용자 편익과 복지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고 통신망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선박전화, 무선호출기자급제 및 주파수 공용무선통신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 제공지역을 확장하여 국민의 다양한 통신수요 변화에 대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 번호

서비스, 각종 생활정보안내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기존 전화서비스의 이용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정보유통의 대중화를 촉진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전송시설을 확충하고, 항공예약정보, 신용정보, 철강VAN, 자동검침 등 각종의 부가가치통신서비스를 상용화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보이용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과감한 통신이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단일요금제의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금년말까지 시외 및 국제요금을 인하하고 공휴일 및 다량이용자를 위한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하겠으며, 전용회선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집단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요금도 점진적으로 개편하여 각종 통신서비스 사용자들의 정보이용을 돕도록 할 것이다.

### 나. 첨단기술개발 및 통신산업육성

#### (1) 핵심기술의 자립화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먼저 전자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산 전자교환기인 TDX-1을 놓어준 표준기술으로 채택, 금년중 28만여 회선을 공급하여 주력 기종화하고 중소도시용인 TDX-1B를 개발 완료하는 한편 TDX-10의 시험용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인증시험과 아울러 소프트웨어의 보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환기의 핵심부품인 반도체 확보를 위해 198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온 4MDRAM은 금년 중 실험시제품의 개발을 완료하고 1989년에 실용시제품을 제작할 방침이다.

또한 200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종합정보통신망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가입자 접속장치 실용모델을 시험 보완하고, 디지털 전화기의 주요 기능개발 및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1991년 개발을 목표로 1986년부터 민

·관이 공동 추진해온 행정전산망용 슈퍼미니급 컴퓨터도 금년중 도입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조립생산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 통신시장 개방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추세에 부응한 신기술의 조기 표준화와 ITI 등 국제통신기구 활동에의 적극 참여를 위하여 통신사업자, 연구소, 학계 및 산업계로 구성되는 민간주도의 통신기술협회를 설립할 방침이다.

#### (2)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먼저 국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통신장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통신산업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통신기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통신기자재의 품질향상과 신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유망 중소통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또한, 중소통신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측정장비 구입지원 및 품질관리 활동도 시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통신장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화단말기와 정보통신단말기 등을 주 대상으로 하여 부품기술의 지원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주력상품화할 방침이다.

#### 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2000년까지 전산망분야의 세계 선두그룹에 진입한다는 장기목표 하에 현재 정부 관련부처와 관련업체의 유기적 협조체제 아래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산망 감리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중복된 컴퓨터 도입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겠다.

금년에는 특히 그간 추진해온 행정전산망사업 중 주민관리 등 5개 단위전산망을 개통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기종 또는 다

른 기종망간의 호환성 및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표준화 추진체제를 갖추고 하반기부터 장·단기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에 설립된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건의기구로 지위를 확고히 하여 정보통신 통계조사 및 정보통신산업 동향을 분석해 하는 등 그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라. 정보문화의 확산

정보화사회 조기구축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는 이에 적응하는 일반국민들의 대응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신부는 도래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정보문화 확산이라는 정책기조하에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의 당면 추진목표로 사회 전반에 미래사회 대응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주도 추진조직에 대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발족한 정보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전기통신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문화센터의 주도하에 금년 상반기중 통신사업자, 연구기관, 관련단체 및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정보문화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인바, 향후 정보문화 확산운동의 구심체로서 이 협의회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작년의 경우 정보통신훈련센터가 약 3천명의 교육인원을 배출하였으나 정보문화센터로 개편된 첫해인 올해는 약 5천명을 배출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이들이 사회 각방면에서 정보화 추진의 선도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문화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등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정보문화 확산에 관한 특강 신설을 지원토록 하겠다.

다음으로 어린이대공원에 전기통신 상설전시

장을 설치하고, 청소년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주도될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지역에 전기통신미래관을 올해내로 착공토록 하겠다. 또한 서울, 대구 등 9개 도시에 90년까지 지역정보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정보문화 확산의 구심체로 활동케 할 것이다.

#### 마. 전파자원의 이용확대 및 이용 효율화

선진 각국은 범국가적 지원체제를 통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무선통신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파자원의 이용능력 확대와 전파자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전파의 활용 확대와 이용전파의 현대역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소형무선기기 및 간이무선국 등 근거리무선통신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아마추어무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위성, 해상통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통신, 기상, 방송위성용 케도 및 주파수를 확보하고 원양선박용 무선통신 주파수를 확보하는 등 위성 및 해상 전파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전파공해방지기준을 제도화하여 전파이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전파의 상호간섭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도서 및 농어촌의 난시청지역에까지 방송망을 확장하여 TV 가시청율을 현행의 93.6%에서 최고 94.4%까지 향상시킬 방침으로 있다.

#### 바. 통신정책기능 강화 및 경영체제 개편

정보통신기술이야말로 미래사회를 주도해나갈 뿌리기술(Root-type Technology)이라는 인식 아래 체신부는 정보문화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균등될 수 있도록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정보통신 전담조직을 보강함으로써 확대되는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

융합 것이며, 통신정책과 연구개발기능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통신연구기관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업인 통신공사의 경영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고 다수 국민의 통신사업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위하여, 통신사업 경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수준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민영화할 계획이다. 1989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1992년까지 정부보유주식의 49% 이하를 연차적으로 매각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체신부는 공사민영화추진위원회와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다.

또한 첨단통신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개발로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에 선의의 보완적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영역별 특 수성을 감안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년내로 전문화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되, 전문화의 대상분야는 국제통신, 이동체통신과 항만통신, 그리고 구내통신 및 부가가치통신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 서울올림픽 통신지원체제 완비**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성공적인 전산·통신운용을 통하여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널리 떨친 바 있다. 세계인의 축제인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올해에 체신부는 성공적인 전산·통신지원을 위해 첫째 공중통신의 완벽한 지원, 둘째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대, 세째 통신망과 전산망의 완벽한 연계활용체제 구축 등을 중요 목표로 삼고 운용에 완벽을 기할 방침이다.

이미 기본시설은 작년에 완비되었으며 5월까지의 시설을 확인점검하고 이후부터 대회 개시 전까지는 예비운용에 들어가게 되며 9월부터 10월까지 본격 운용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대회기간 중에는 비디오텍스, 카드식 공중전화, 주파수공용방식 무선통신 등의 첨단 통신미디어도 함께 대회운영 지원에 나섬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자올림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산지원을 위하여는 경기운영시스템(GIONS), 경기정보시스템(WINS), 대회관리 및 지원시스템(SUPPORT)을 개발 완료하여 대회기간 중에 연세 운용함으로써 경기운용을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4] 맺음말**

금년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의미있는 해이다. 작년에 전국 전화자동화의 완성과 함께 1가구1전화시대를 개막하게 된 전기통신분야는 올해를 제2의 도약 단계에 들어서는 초석이 되는 해로 삼고자 한다.

이에 2000년대를 바라보는 통신정책의 기본 방향이 발전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그동안 추진되어온 공급위주의 정책을 질적고도화정책으로 전환하여 이용자중심의 복지통신을 구현하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다.

기술개발면에서 보면 그동안 전문연구소와 산업체간의 밀접한 협력아래 첨단 응용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원천기초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기술개발 중장기계획을 시행하여 2000년대에는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고도통신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욕구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반국민들이 정보화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며, 정보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역기능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일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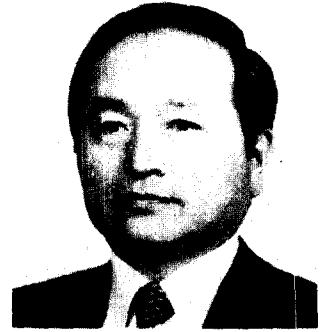
체신부는 정보문화의 확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일반국민의 정보문화 적응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며 2000년대 초까지 정보통신단말기 1,000만대 보급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정보화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예상되는 컴퓨터범죄, 사생활의 침해, 정보의 독점과 집중에 의한 정보접근의 제한, 인간소외현상의 심화등 여러가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철학적, 사회과학적 연구에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다.

끝으로 정보화사회의 도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학·연·관의 각계 각층에서 부단한 노력과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통신관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건전한 비판과 협력 위에 통신발전을 통한 풍요로운 국민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吳 明

#### 저자 약력

- 1940. 3. 21 서울생
- 1962. 서울대공대 전자과졸업
- 1970. 미국뉴욕주립대 대학원 졸업
- 1972. 미국뉴욕주립대 공학박사 취득
- 1979.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1980. 국보위 상공자원분과 위원  
대통령 경제비서관
- 1981~1987. 7. 13 : 체신부 차관
- 1987. 7. 14~현재 : 체신부 장관